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4호 【루게 제24527호】 주제 103 (2014)년 4월 24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관하 여성방사 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관하 여성방사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장령들인 박정천 동지, 윤영식 동지가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포사격계획과 포병구분대들의 배치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늘 말하는 것이지만 훈련에서 형식주의를 뿌리 뽑고 도식적인 방식과 멧따기를 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특히 방사포병들은 전투임무에 맞게 기동으로부터 전



명령에 따라 방사포병구분대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정해주신 사격순차와 방법대로 사격을 개시하시였다.

천지를 진감하며 노호하는 포성과 함께 시별건 불줄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 목표구역을 연속 타격하시였다.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해치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백두산혁명강군의 타격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며 원추격멸의 포탄들이 목표구역을 초토화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불바다에 잠기는 목표를 바라보시면서 포사격을 잘한다고, 멋있게 들어 맞는다고, 여성방사포병

말씀하시였다. 개, 목표조건과 사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는 것을 체질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사격장에 이미 전개한 방사포병대들을 보시고 현재 자지한 진지에서

불의에 기동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여성방사포병들은 평시훈련에서 다져온 전투력을 높이 발휘하

여 육중한 포를 끌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정해주신 화력진지에 신속히 기동전개하고 사격준비를

들이 정말 용감하고 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 851군부대 관하 여성방사 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훈련은 반미대결전을 총대로 결산하고 최후의 승리를 기어이 안아오야말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결사의 의지를 힘있게 파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여성방사포병들이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심장깊이 새기고 훈련을 강도높게 진행한 결과 오늘과 같은 정황속에서도 명중탄을 날릴수 있었다고 하시

면서 포사격훈련이 성과적으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진행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 851군부대 관하 여성방사포병들은 자기들의 훈련을 몸소 지도하여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영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의 눈물을 흘리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백발백중의 명포수로 튼튼히 준비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혁명의 진리, 계급투쟁의 철리는 세기를 이어 메아리친다

##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 창조 40돐에 즈음하여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주제 63(1974)년 4월 24일 평양 대극장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함경남도예술단에서 창조완성된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성황리에 공연의 첫막을 올렸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연을 보시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면서 혁명가극창조성원들을 사랑의 한복에 안아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셨다.

그때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왔지만 혁명가극은 세기를 이어 오늘도 우리 천만군민에게 혁명의 진리, 계급투쟁의 철리를 준철히 깨우쳐주고 있다. 이렇듯 가극이 인민의 사랑을 받도록 영원한 생명력을 안겨주신분은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이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심오한 사상적내용과 독특한 예술적형상으로 하여 항일혁명문학예술의 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은 불후의 명작으로서 우리 문화예술의 혁명전통을 더욱 빛나게 하였으며 광범한 대중을 일제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불리워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나날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예지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피바다》의 혁명가극으로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된 것은 주제문제에 특기할 또 하나의 사변이었다.

이 뜻깊은 사변이 과연 어떻게 마련되었던가. 지난 세기 60년대와 70년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문학예술작품들을 가극과 영화로 옮기시겠다는 위대한 영광을 확고히 믿고 계셨던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혁명가극을 후손들에게 길이 전하는 중대한 사업

으로 여기시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본보기로 하여 문학예술전반을 새로운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명도하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광범한 애국력량을 일제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불리워키기 위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던 시기에 창작하신 작품으로서 주제 25(1936)년 만간에서 공연되었다.

당시 민족주의의식이 부족하고 계급적으로 각성하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데는 무관리와 가난을 타고난 팔자로 여기며 일제침략자들과 맞서싸우기를 주저하고 지어는 놀들에 대한 환상까지 가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심오한 사상적내용과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하여 광범한 대중을 일제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불리워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력사적의의와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군님께서 그것을 영화로 옮기신 데 이어 《피바다》의 혁명가극으로 각색하는 사업을 구상하시고 이 무거운 도에 영예로운 과업을 함경남도예술단에 맡겨주시였다. 그리고 중앙의 우수한 창작가들과 일군들을 방조성원으로 보내주셨다.

어느해인가는 당의 배려에 의하여 평양에 올라와 연습을 하면서도 아직 가극을 완성하지 못하여 최승석 리우하는 일군들에게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가극으로 옮기는 사업이 어떻게 그리 쉽게 되겠는가. 너무 막심하지 말고 집에 내려가 설명을 해 다음 다시 올라와서 한번 본대고 해 보라고 하시며 고루도 해주셨다. 함경남도예술단 배우들에게 년하장을 써보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새해를 축하합니다라고 쓰신

사랑의 년하장을 보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이렇게 뜨거운 정과 믿음은 주시며 한편의 가극완성을 위해 수십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지도를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는 정병 부피터운 책에도 다 적을수 없다.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가극창조사업이 잡되지 않아 안타까와하고있을 때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혁명가극으로 각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가들이 원작의 줄거리를 깊이 있게 파악한데 기초하여 가극무대의 특성에 맞게 원작의 심오한 사상을 정확히 보여줄수 있도록 이야기를 잘 전개하는것이라고 따듯이 일깨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말씀은 그들이 새로운 심신을 안고 일머써서 한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창조현장에 자주 나오셔서 전체적인 예시에 그늘에 갇혀 《피바다》의 혁명가극창작원칙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또 언제인가는 수정한 작품을 보아 주시고 가극의 생명은 노래인것만큼 노래가 좋아야 한다고, 노래들을 인민성과 민족적특성, 통속성을 구별한 유순한 선율을 만드는것은 《피바다》의 가극창작의 기본원칙의 하나라고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위대한 김정일동지, 이런 세심한 손길로 혁명가극에 내

어는 30여곡의 노래를 선정하시기 위해 무려 1만여곡의 노래를 들으시고 한곡한곡 주옥같이 다듬어 명목으로 완성시켜주시였으니 그 나날에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명목 《꽃피는 이 봄날에도》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주제 62(1973)년 여름 어느 날,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 들어갈 노래들을 지도해주시기 위하여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목기로 전주곡으로부터 시작하여 매개 장면들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의 노래며 2중창과 3중창, 방창에 이르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주의깊게 들으셨다. 이제는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던 일

군들은 장군님께서 노래가 모두 부르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노래를 드시며 노래들의 악상을 분석해 주실 때 그만 얼굴이 붉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사를 하나씩도 누구나 알수 있는 가사를 쓰며 노래를 하나 지어도 누구나 쉽게 부를수 있는 통속적이며 인민적인 노래를 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문득 전면 시연회때 3장에 나왔던 노래를 어떻게 되였는가고 물으셨다. 어느 노래인지 몰라 모두가 어리둥절했다. 그 노래로 말하면 가극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릴 한탄 나왔던 곡이었는데 가극을 개작하는 과정에 이에 중점을 감추고 창작가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져버렸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노래는 대략을 갖 줄일만 작곡가가 지은것이여서 지속한데가 있지만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는 유순하고 부드러운 민족적인 정서가 깃들어있기때문에 잘 살리면 훌륭한 노래가 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 노래를 찾아 다시 곡상을 음미해보던 창작가들은 솜주치는 격정속에 무릎을 쳤다. 그의 말씀 그대로였던것이다. 그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래를 명목으로 더욱 훌륭히 완성시켜주시였다.

이런 기록한 명도의 손길아래 창조완성된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혁명가극은 일제침략자들의 아수적인 본성을 날림이 까발리고 사람들에게 식민지인민들에게는 어릴 가나 결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곳이란 없으며 그들이 살길은 오직 손에 무장을 들고 투쟁에 일떠서는 길뿐이라는 혁명의 진리, 계급투쟁의 철리를 깊이 새겨주며 모두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수많은 외국의 벗들도 가극의 세계에 심취되어 이런 위대한 가극들을 20세기 문예부흥기를 펼쳐가는 주제조선의 빛나는 현실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러은 혁명가극창조의 나날은 창조집단의 실력과 수준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그들이 《피바다》의 가극의 우월성을 심장깊이 절감하게 한 잊을수 없는 뜻깊은 나날이었다.

100회, 500회, 1000회... 혁명가극창조집단은 이렇게 수십 년동안 중앙과 지방의 여러곳에서 많은 공연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 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에게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에 빠지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진리를 깊이 새겨주었다.

가봉이, 철삼이, 만삼이의 생활을 통하여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는 종자를 진실하게 밝히고있는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오늘도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술책에 넘어가 구걸과 양보에 달달하다가 피바다에 잠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뼈저린 교훈을 되새기게 하였으며 오직 인민의 원수

들과는 무장을 들고 끝까지 용감하게 맞서싸워 승리해야 한다는 자각과 의지를 백배해주고있다. 이렇게 우리 민족뿐아니라 전세계 인민들에게 운명개척과 투쟁의 새 길을 밝혀주고있는데 가극의 창조적의의가 있으며 영원히 빛을 뿌리는 거대한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오늘 함경남도예술단에서는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형상 수준을 더 높여나갈 목표를 세우고 창조전투를 힘있게 벌려 혁명가극창조 40돐에 즈음하여 함흥대극장에서 또다시 막을 올렸다. 준엄했던 고난들에도 죽는다는 종자를 진실하게 밝히고있는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훌륭히 형상창조하여 천만군민을 슬기롭게 고무추동한 이곳에 슬ullan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혁

명적인 창조기쁨, 투쟁기쁨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돌이켜볼수록 수십년전에 벌써 조국의 오늘과 먼먼 미래를 내다보고 혁명의 진리, 계급투쟁의 철리가 세차게 뉘는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귀중한 만년채보로 후손들에게 길이 빛내주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위인상과 불멸의 업적에 걸맞은 매혹과 감탄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께서 또다시 무대위에 걸치신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드가나마냥 끓게 할 것이며 침략의 원흉인 미제와의 마지막판카리싸움에서 최후승리를 안아오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서로의 지혜를 합쳐 연기형상을 더욱 완성해 가고 있다. -함경남도예술단에서- 본사기자 찍음

## 영웅적조선인민군장군 82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에서 연회 마련

영웅적조선인민군장군 82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에서는 23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주요 무관단성원들과 여러 나라의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시며 애정을 표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시며 애정을 표하였다.

## 제29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막

제29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이 개막되었다. 첨단기술개발, 과학기술과 생산의 밀착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전에서는 성, 중앙기관과 대학, 각 도(직할시)과학기술축전에서 당선된 180여개의 단체와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등들이 참가하였다. 축전에서는 농업, 2분과, 건설, 경영, 정보기술, 나노기술, 금속, 화학공업분야를 비롯한 20개 분야로 나뉘어 단체, 개인별로 과학기술성과와 경험들을 발표하며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지적재산권 및 첨단제품 교류행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개막식이 23일 3대혁명정신

판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최상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장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판계부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들,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제하한 조선과학기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정은은 인사말에서 선군혁명명도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과학기술축전이 새 세기 과학기술대진군을 다그치고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추동하는 위대한 수단으로 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번 축전이 짧은 기간에 첨단과학기술의 요소를 많이 접경해나가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면모를 보여주고 전시회로서의 과학기술기쁨, 전진과학기술인쇄회의의 선봉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과학자, 기술자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최첨단들과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두뇌적, 실력적인 과학자이며 인민경제의 주체, 현대화, 과학화 실현에 적극 이바지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인사말에서 "과학기술은 모든 참가자들이 축전을 통하여 과학연구성과들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심으로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돌아보았다.



##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남조선적십자사에 위문전문을 보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23일 남조선적십자사에 위문전문을 보내었다.

위문전문은 지난 16일 전라남도 진도읍바다에서 발생한 한 력적인 《세월호》침몰사고로 나타난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된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지적하였다.

## 로씨야 싸할린주정부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려대 참관

23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를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적사과 일가분들의 애국적인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역전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명에 대한 다짐없는 호모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를 찾았다고 지적하였다. 유서깊은 만경대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마음의 고향으로 간직될것이다. 손님들은 또한 미림수마구락부, 만수물놀이장, 메리사역관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영국 레이비당출신 국회 상원 의원일행 여려대 참관

네일 포비스 데이비드슨 영국레이비당출신 국회 상원 의원과 일행이 미림수마구락부를 참관하였다. 그들은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대중문화행사지를 훌륭히 일떠서 우리 근로화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적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구락부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또한 주제사상관, 옥류야동맹원, 문수물놀이장 등을 참관하였다. 영국레이비당출신 국회 상원 의원일행 주제사상관 참관

## 인민이 사랑하는 새시대의 영웅작곡가들 (1)

로력영웅, 인민예술가 황진영의 창작활동을 더듬어

만 같은 사랑을 받아안은 황진영은 그야말로 새 생명을 받아내고 소출발을 하는 심정이었다. 하지만 몇해째 영화음악을 창작해온 황진영은 당과 조국, 시대의 혁명이라는 거창한 주제를 어떻게 다루겠는가 하는 격정으로 하여 싯곳 오선지에 연필을 댄수 없었다.

변화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상정신적으로 수양해나가며 창작적열정을 끊임없이 갈양시켜나간다는것은 웅대한 각오와 노력이 없이는 실현할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무한한 창작적열정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신 행운아들이었다. 세계가 새 세기를 맞이하고 많은 나라 정치가들이 새 세기 전략을 내놓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조선의 목표를 강성국가건설이라고 하시며 민족사적업무를 전두에서 지휘하시였다. 력사에 유례없는 초강대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우리도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눈부신 전변을 체감하는 음악가의 가슴속에 선군조선의 숨결이 그대로 《나노이 더 배리》로 메아리쳤다. 하여 황진영은 주제90(2001)년 선군조선의 무궁무진한 힘을 폭발시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거대한 음악세계를 절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노래 《우리는 맹세한다》에 담긴 더 부강하게 하리라 내 나라 내 조국을, 《총대로 용위 하리라 우리의 위업을 세기대 황진영은 한편의 노래로 민족의 운명문제를 밝혀주시고 선군조선의 무궁무진한 힘을 폭발시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거대한 음악세계를 절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노래 《우리는 맹세한다》에 담긴 더 부강하게 하리라 내 나라 내 조국을, 《총대로 용위 하리라 우리의 위업을 세기대 황진영은 한편의 노래로 민족의 운명문제를 밝혀주시고 선군조선의 무궁무진한 힘을 폭발시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거대한 음악세계를 절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노래 《우리는 맹세한다》에 담긴 더 부강하게 하리라 내 나라 내 조국을, 《총대로 용위 하리라 우리의 위업을 세기대 황진영은 한편의 노래로 민족의 운명문제를 밝혀주시고 선군조선의 무궁무진한 힘을 폭발시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거대한 음악세계를 절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노래 《우리는 맹세한다》에 담긴 더 부강하게 하리라 내 나라 내 조국을, 《총대로 용위 하리라 우리의 위업을 세기대 황진영은 한편의 노래로 민족의 운명문제를 밝혀주시고 선군조선의 무궁무진한 힘을 폭발시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거대한 음악세계를 절감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예술가들의 무라 참된 예술가, 뛰어난 예술가는 시대를 앞서나간다고 일러왔다. 그러나 그 모든 예술가들의 무라 참된 예술가, 뛰어난 예술가는 시대를 앞서나간다고 일러왔다.

그러나 그 모든 예술가들의 무라 참된 예술가, 뛰어난 예술가는 시대를 앞서나간다고 일러왔다. 그러나 그 모든 예술가들의 무라 참된 예술가, 뛰어난 예술가는 시대를 앞서나간다고 일러왔다.

그러나 그 모든 예술가들의 무라 참된 예술가, 뛰어난 예술가는 시대를 앞서나간다고 일러왔다. 그러나 그 모든 예술가들의 무라 참된 예술가, 뛰어난 예술가는 시대를 앞서나간다고 일러왔다.

그러나 그 모든 예술가들의 무라 참된 예술가, 뛰어난 예술가는 시대를 앞서나간다고 일러왔다. 그러나 그 모든 예술가들의 무라 참된 예술가, 뛰어난 예술가는 시대를 앞서나간다고 일러왔다.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표단이 떠났다

윤길상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대표단이 23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 걸친국 해외동포사업

국 국장이 전송하였다. 이에 앞서 김정수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대표단이 돌아갔다.

국 국장이 전송하였다. 이에 앞서 김정수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대표단이 돌아갔다.

국 국장이 전송하였다. 이에 앞서 김정수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대표단이 돌아갔다.



수리아대사관 성원들 전승혁명사적관 참관

수리아독립 68돐에 즈음하여 마담 솔레이만 주조 수리아아랍공화국 임시대사관과 대사관 성원들이 23일 전승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먼저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적으로서, 비범한 명군술로 세계(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때려부시고 현대전쟁에서 특기할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영상을 모신 묘자이크회화에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불리워키시며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신

가호 엘레나 니콜라에브나 제발진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싸할린주정부대표단이

23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를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적사과 일가분들의 애국적인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역전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명에 대한 다짐없는 호모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를 찾았다고 지적하였다. 유서깊은 만경대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마음의 고향으로 간직될것이다. 손님들은 또한 미림수마구락부, 만수물놀이장, 메리사역관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가호 엘레나 니콜라에브나 제발진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싸할린주정부대표단이

23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를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적사과 일가분들의 애국적인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역전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명에 대한 다짐없는 호모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를 찾았다고 지적하였다. 유서깊은 만경대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마음의 고향으로 간직될것이다. 손님들은 또한 미림수마구락부, 만수물놀이장, 메리사역관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반적인 인민군을 위한 인민의 평등

최근 조선인민군 김화련소속구분대 군인들이 락랑구역 락랑소학교구분지역 학생들의 개교준비를 성실성있게 도와준 사실을 알려주며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나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조석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천하장사들이다. 최근에도 조국강성대 진감시거머려 이어 일어난 눈부신 기적은 그 어느것이나 다 군민대단결, 군민동화적정신의 산물입니다.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강화해 나가는데서 주동이 되고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 혁명군가를 힘차게 부르며 인민군관들이 락랑구역 락랑소학교로 들어

세 학년도를 앞두고 개교준비를 하고있던 교장 라홍숙동무와 교직원들은 저마다 운동장으로 달려나갔다.  
라홍숙동무는 대렬속에서 낮은 두 인민군관들을 알아보았다. 얼마전 학교에 찾아와 학생들의 개교준비를 돕고있다고 하던 군관들이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평양시의 유이원과 예숙원을 돌아 보신 소식이 전해진 날 구분대의 지휘관들은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최고사령관동지

우리 군대가 제일이다

조선인민군 김화련소속구분대 군인들

리주변 석축공사와 나무심기, 체육구제들에 대한 도색작업이 낮에 밤을 이어 계속 되었다.

학교의 교직원들이 밤이 깊었다고,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고 눈물을 젖어 말할 때 군인들이 함창하듯 웨친 목소리는 무엇이었던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을 때 제일 기쁘다고 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를 읽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화악이 불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인민군대의 투쟁기질, 창조분배에 의해 학교의 면모는 날이 다르게 일신되어갔다. 그러면수록 교직원들의 안락개운은 커만 갔다.

《학생님들은 마음놓고 새 학년도준비를 잘해주시시오.》

학교로 달려나온 그날 군인들이 내린 《명령》에 의해 흠 한사도 떠보지 못하는 그들은 전투는 학교에서만 벌어졌 것이 아니라였다. 최초의 녀성 군인들은 근무생활의 찌꺼기를 리용하여 수백원이나 되는 학생들의 책표지를 정성껏 끼웠고 밤을 새우며 개교식 날 학생들에게 걸려줄 꽃꽂이를 만들었다. 새 학년도준비와 관련된것이라면 그 어느

사람들의 의혹에 찬 눈길 그 군관에게 쏟아졌다. 얼마후 그는 품안에서 새 신발을 꺼내어 진명에게 건 주었다. 그러는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한껏 어렸다. 땀은 군복, 땀에 젖은 모습... 진명이의 삼촌이더니, 사 람들도 눈물을 흘렸다. 그 군관이 바로 오철남동무였다. 그날 연단에 나선 박진명 학생은 포방포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4학년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는 부모없는 자를 사랑의 한복판 안으로 끌어 주셨는데, 모범소년단원으로 키워주시었습니다. 우리 원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안고 얼마전부터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집까지 찾아와 저의 새 학년도개교준비에 자그마한 빈틈이라도 있을세라 친부모의 심정으로 들봐주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군대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 \*  
락랑구역 락랑소학교에서는 지금 다가오는 건국절을 맞으며 인민군관들을 원호 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교직원들은 물론 군부형동무와 학생들까지 펼쳐 나갔다.

이런 화폭은 오철 남이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군민대단결을 깨뜨릴 힘은 없다.

본사기자 리경일

김책시 역전동 문해란, 문해봉동무들

위대한 평도자 김책시 역전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선군혁명 의 환광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진정한 동지적관개로 굳게 결합되고있으며 그 사이에 군민 일치의 미풍이 자택되고있습니다.》

김책시 역전동에 가면 문해란, 문해봉동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이들은 어디에서나 흔히 만나볼수 있는 평범한 가정부인들이다. 생활에서는 서로 위해 주는 마음이 뜨거운 다정한 자매이지만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합쳐가며 원군 사업을 보다 힘있게 내걸고 있었다. 언니네로, 동생은 동생대로 어떻게 하면 병사들을 더 잘 도와줄것인가 할 마음을 썼다.

그러던 어느날 언니를 찾아온 문해봉동무는 문득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언니, 우리 영애군인들을 돕는것이 어때요?》

《참 훌륭한 생각을 했구나. 나도 찬성이다.》

문해란동무는 자기도 이미 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서 동생의 의견을 지지해 주었다.

이들은 영애군인들의 건강과 생활을 돌봐주기 위한 사업도 마음을 합쳐가며 성의껏 진행하여왔다. 그들은 때없이 영애군인들의 집을 자주 찾아가 살림살이형편도 알아보고 친철육의 정을 기울이면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곤 하였다.

지난해 마시령스카장건설장 과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도 자매는 성의껏 마련한 인호물자들을 보내주었다. 원군의 나날에 문해란동무는 두 아이들을, 문해봉동무는 아이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웠다.

얼마전에도 초소의 병사들은 문해란, 문해봉동무들이 보내온 인호물자들을 받아안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친어머니의 심정이 뜨겁게 담겼것으로 하여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움을 금치 못했다.

원군에게 바쳐가는 이들의 마음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었다.

원군사면일이 아니다. 문해란, 문해봉동무들은 김책시에 위치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산모자이크화회를 모시는 사업과 시혁명전시관을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될 때에도 뜨거운 지성을 바치였으며 이밖에도 백두산선군전날전선조선지원을 비롯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한 여러가지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였다.

참으로 훌륭한 녀성들이고 돋보이는 자매들이다.

본사기자 홍성철

온 사회에 넘치는 혈육의 정

영애군인들을 친철육의 정으로 돌봐주는것은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사회에서만 꽃피울수 있는 고상한 미풍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책시 역전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영애군인들은 우리 당이 아끼고 사랑하는 핵심이고 전상자, 공로자들입니다. 그들을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연란군 을 161인민반에서 살던 서명순동무가 만사람의 추복속에 특유영애군인 조반철동무와 새 가정을 이루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영애군인과 정과 뜻을 같이하는 진정한 혁명동지가 되려는 서명순동무의 아름다운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어는 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었다.

향산군 구두협동농장 농장원이었던 강병실동무도 우리 당이 그토록 아끼고 내세워주는 영애군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것이 우리 시대 청년들의 우량한 도리라고 하면서 특유영애군인 방철호동무의 영원한 고향무가 되었다.

평성시인민보안서 아베단위 인민보안리 리철호동무는 영애군인 리홍식동무의 생활을 성실성있게 도와주고있다.

7년전 삼철차고장으로 에 로를 겪는 한 영애군인을 도와준것으로 하여 그와 인연을 맺은 리철호동무는 오랜 기간 혁명업무수행의 바쁜 속에서도 언제나 리홍식동무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또한 강반석혁명학원에서 공부하는 영애군인의 딸이 학습과 생활을 잘해나간도록 극진히 돌봐주고있다.

선천군인민보안서 황선일, 최영환, 김영수, 최미향동무들도 영애군인을 위하여 깨끗한 정정을 바치는 인민의 보원원들이다. 영애군인 정영식동무의 집이 지난해 장마피해로 손상되었을 때 그들은 원래 살던 집보다 더 훌륭하게 꾸려주었으며 식량과 빨간, 김장용소금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지성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영애군인의 친철육이 된 심정으로 오랜 기간 그의 생활과 병치료를 위해 온갖 지성을 바치오고있는 최미향동무의 소행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승철진

위대한 평도자 김책시 역전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를 친철육적 사랑하고 성실성있게 원호하는것은 결국 자기 아들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것입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초적인 군민대단결은 무엇으로 굳건한가.

이 나라의 한 평범한 녀성의 모습이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고있다. 꽃가슴에 병사수의 꽃송이를 단 병사들이 달려오고있었다. 그들은 향해 달려가던 함흥화녀성은 무릎을 꿇고 그 아래에서 서버렸다.

손을 흔드는 저 중대장은, 구리빛얼굴의 저 분대장은, 불에 노조개개 편 곱살한 저 병사들은... 정경은 얼굴들은 계속 마주 오는데 그의 입에서는 좀처럼 말이 나가지 않았다.

함흥화녀성은 너무 안타까와 발까지 동동 굴렀다. 누군가 자기를 흔든다. 그는 번쩍 눈을 떴다.

《당신 품을 온 모양이로구나.》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있었다.

《병사들이 계속 달려오는

데 어디 이름이 생각나야지요. 얼마나 속상하던지.》

심심한 마음을 녹였는지 못하게 되어서는 눈부신 햇빛이 쏟아져내리고 12년째꽃대문으로 하는 학생들이 돌아왔다. 아이들이 아이들의 앞길에 꽃보라를 뿌려주었다. 그날을 위해,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군부형동무와 학생들까지 펼쳐 나갔다.

이런 화폭은 오철 남이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군민대단결을 깨뜨릴 힘은 없다.

본사기자 리경일

병사들의 어머니

형제산구역 제산리 10인민반에 사는 함흥화녀성

시내의 여러곳을 찾아다니다.

이튿날 밤늦게까지 집집순들에게 파묻혔지만 편히 쉬어 줄 잠도 나지 않았다. 손에 자개바람이 일 정도로 먹이를 가쁘고 집집순우리를 손에 쥔채로.

이렇게 애써 기른 집집순들을 처음으로 인민군관들에게 보내주게 되었을 때 함흥화녀성의 마음은 기쁘고 설레었다. 자기도 당의 선군영도를 받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게 되었다는 긍지가 가슴속에서 차올랐다.

그는 신념을 더 바싹 조였다. 눈을 따라 집집순의 머리수

가 늘어갔다. 그러다나니 집집순우리가 문제였다.

함흥화녀성은 남편과 함께 밤마다 화불이에서 불로코를 찍었다. 집집순들을 돌보며 여기저기다 한통기한통기 불로코를 쌓았다. 난생처음 손에 미장판을 쥐고 미장도 해보았다.

당지근 집집순우리가 일떠섰을 때 함흥화녀성은 놀라기만 하였다. 자기도 예도 이런

에 어떤 고결한 삶의 지향이 깔려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아들, 며느리들도 어머니의 뒤를 따라왔다.

지금까지 함흥화녀성은 수십1의 고기와 수천개의 알을 생산하여 인민군관들에게 보내주었다.

언제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나올수 있는가고 묻는 사람들에게 함흥화녀성이 웃으며 한 말이 있었다.

《자식들을 위한 일은 아무 리 험해도 힘든줄 모르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병사들모두가 내 친자식들이니까.》

우리 병사들뒤에는 이런 어머니들이 있었다.

군대와 인민의 가를수 없는 혈연의 정. 이것으로 하여 영애의 영애군인대단결이 위력하고 공고한것이다.

본사기자 조경철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인간의 생명을 두고 본 판이한 현실

《하루빨리 대지를 박차고 일어나고싶습니다. 이 한복 광그리 바쳐 조국을 받들고싶은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 말은 지난해 뜻밖의 화상을 당하여 평성시인민병원에 입원했던 한 환자 자기의 소생에 갖는 가지가지의 사연을 전해 듣고 눈물속에 터놓는 격정이다.

평범한 로동자인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바치고 피부를 바치셨는가. 모두가 환자의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레사롭고 평범한 일로 되고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책시 역전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미화분식하고 사회주의를 비방공상하는데 열을 올리고있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어디까지나 자본가계급이 지배하는 착취계급사회이며 사회주의사회야말로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어 다같이 보람차게 사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입니다.》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어 지성을 기울인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는 얼마이고 자식없는 늙은이들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며 영애군인의 인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는 또 얼마인가.

하기에 우리는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간직하고 그 품

을 지키고 빛내이는 길에 자기의 한복속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여기는것이다.

-이 한복 광그리 바쳐 조국을 받들고싶은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 말은 한 환자 자 자신의 기쁨에 넘쳐 외시적인 총동이나 감동으로 외은 말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심정의 토로이고 새 생명을 얻게된 조국과 인민앞에 다지는 엄숙한 선서이기도 하다.

생사기로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하여 누구나 이런 격정을 터놓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준것이 오히려 그에게 더 큰 불행과 절망감을 안겨주고 환자가 자기의 생명을 건져준 사람에게 원망까지 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

그런 책고 병든 사회가 바로 걸림병든 자기의 허물을 가려우고 이리저리저리 남을 시비질하기 좋아하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자화자찬하는 책이 빠진 자본주의사회이다.

얼마전 어느 한 자본주의 나라에서 있는 일이다.

한 사람이 머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오게 되었다. 그런데 의사상하게도 진찰을 받던중 머리아픔이 씻은듯 없어지게 되었다.

그냥 돌아갈수가 없어 그는 의사가 요구하는데로 혈압과 맥박을 재고 일련의 검진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두달후 병원측에서 보

전쟁로병들의 삶을 놓고

우리는 전쟁로병들이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 떠 받들려오고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진정을 다 바치는것은 우리 사회의 미덕으로, 세 세대들의 도덕의로 되고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책시 역전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해방전쟁 참가자들은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인민의 조국을 지켜싸운 영웅전사들입니다.》

얼마전 본사원전국으로 만경대구역에서 사는 한 전쟁로병이 편지를 보냈다. 거기에는 전쟁로병들의 생활을 친철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주시는 구역일꾼들과 주민들에 대한 소행이 적혀있었다.

《나라에서는 저를 전쟁로병이라고 우대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친자식이 되어 저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있습니다. 정말이지 전쟁로병들을 내세워주고 보살펴주는 우리 제도가 제일입니다.》

우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처럼 조국을 위해 괴로운 전쟁로병들을 모두 안아 갈아주는 생의 언덕에 세워준다. 그 품에서 전쟁로병들은 사회적존경과 우대를 받으며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에서 전쟁로병들의 처지는 어떠한가.

몇해전 어느 한 출판보도물에 는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에서 조국과 자신들의 처지를 두고 한탄하는 전쟁로병들의 목소리

우며 존경하고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는 우리 사회와 얼마나 내조적인가.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전쟁참가자들도 많다. 그러나 전쟁로병이라는 값높은 부름으로 조국의 품속에서 후대들의 존경속에 복된 삶을 누리는 전쟁로병들은 우리 나라에밖에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전쟁로병들이 혁명선배로 존경과 우대속에 살을 빛내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은 한갓 버림받은 존재로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잊지 못해하고있다.

본사기자 오은별



신천평에서 학살판행을 감행한 미제를 천백배로 복수할 결의에 넘쳐있는 참관자들 - 신천박물관에서 - 본사기자 찍음

